

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4. 8. 20.(화)


러시아·CIS 고려인 청년들 “재외동포청 ‘한국이해과정’, 핏줄 알게 했다”

- 8개국 32명 대상 한달간 진행...20일 수료식서 소감 밝혀
- 이상덕 청장 “청년들 모국과 유대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”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‘한국이해과정’ 수료식을 개최했다.
- 지난 7월 22일부터 진행된 이 과정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 32명이 참가했다.
- 참가자 중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다니엘 오로자쿠노프(21세, 키르기스스탄) 씨는 “한국이해과정을 통해 나의 핏줄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, 나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”고 말했다.
- 그는 이어 “태권도가 가장 재미있었고, 처음으로 한국 악기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”며 “키르기스스탄에 돌아가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”고 의지를 보였다.
 - 원 카밀라(18세, 카자흐스탄) 씨는 “모든 프로그램이 흥미로웠고, 다양한 지역에서 온 고려인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”면서 “태권도 수업이 정말 재미있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MBC, 월미도와 같은 여러 장소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한 기억도 오래 남을 것 같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- 행사 공동 주최 측인 경인교대는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과 국악 및 태권도, 한국 요리, K-팝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.

○ 또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MBC, 한국민속촌, 서울의 고궁 등 방문과 한국의 발전된 산업 현장 견학도 진행했다.

○ 참가자들은 수료식 후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동해와 비무장지대(DMZ)를 둘러보고, 8월 23일부터 거주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재외동포청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‘한국이해과정’을 진행했다”면서 “앞으로도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장	정선호	032-585-3213
		담당자	사무관	권오성	032-585-3288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